

---

## 1)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 포기하지 않는 개발자

웹 개발을 위해 쌓아온 능력과 기술을 발휘하여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스마트웹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자 양성과정을 통해 HTML, Javascript와 jQuery, Java Spring, Spring Boot, JSP, ORACLE, Ajax, My Batis 등 프론트와 백엔드 기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Spring을 기반으로한 MVC2 패턴을 적용한 COSVIEW 프로젝트를 완성한 경험이 있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 모델링과 디자인 패턴에 대한 이해 JPA와 SQL 등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 지금까지 쌓아온 백 엔드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개발과 유지보수에 임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회사를 선택한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수 있도록 안정되고 생산성이 높은 비즈니스 로직 구성에 힘쓰며, 하루하루 발전하는 IT업계에 적응해 나가겠습니다.

---

웹 개발자라는 목표에 다시 도전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처음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중학교 재학시절이었습니다. 코딩을 배우며 다양한 언어와 코드들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인터넷부터 자동차나 공장에까지 사용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고민하고 상상한대로 기능구현이 된다는 것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은 컴퓨터정보과라는 대학 진학으로 이어졌고 코딩과 웹 개발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인해 다른 대학 동기들보다 빠르게 입대하였고 전역 후에는 생계를 위해 당장 일을 시작하여야했습니다. 그렇게 첫 사회생활을 요식업에서 시작하였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식업에 종사하면서도 개발자라는 일을 놓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틈틈이 JAVA를 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고 JAVA 언어 과정을 시작으로 코리아 IT 아카데미 대구지점에서 개발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JAVA를 다시 공부하면서 웹 개발이라는 목표를 다시 정하였고, 정보처리산업기사 취득과정에 참여하여 JAVA, Servlet, Spring 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독학했던 내용과 JAVA에 대한 기초덕분에 쉽게 Servlet, Spring 등을 배울 수도 있었지만 HTML, CSS, javascript 등 웹 프론트 엔드 개발 영역에서는 오히려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JAVA를 독학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COSVIEW 팀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웹에 적용하며 어려웠던 Servlet에 대하여 오히려 익숙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수록 나날이 코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늘어났기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스터디와 온라인 강의를 통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덕분에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COSVIEW 프로젝트에서는 백엔드 개발 역할로 회원가입로직,주소 API,상품등록 기능 구현을 맡았으며, Mybatis을 통해 id 중복 확인 기능, 회원 가입기능을 구현하고, Mutiple을 통해 상품등록 기능 등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깨달았고 제가 맡은 역할에 대해 팀원들과 공유하며 발전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웹 개발자라는 목표를 훈련과정에서는 이론과 지식을, 프로젝트에서는 기술과 팀플레이를 쌓으며 성장해왔습니다. 채울 부분이 있다면 더욱 노력하며, 지금에 머무르지 않는 개발자의 모습을 회사에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지는 사교성과 소통하고자하는 태도는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먼저 다가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인간관계가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개발 공부를 위한 훈련과정 첫 날에도 이러한 생각은 같았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먼저 인사를 건네었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먼저 움직이며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성격 덕분에 화장품 리뷰 사이트를 제작하는 COSVIEW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팀원들의 취업고민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방향성을 의논할 때, 먼저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 분위기를 만들었고 소외되는 팀원 없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분할 업무를 어떻게 나눌까 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팀원들을 다독였고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런 저의 성격은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통의 목표를 정하고 추진할 때, 저와 함께 하는 팀원들의 생각을 듣고 반영하다보니 대화가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결정력이 약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팀원들과 방향성, 구체적인 기능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보니 다른 팀들보다 기획단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처럼 팀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 덕분에 프로젝트 도중에는 다른 팀들 보다 트러블 없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지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도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Si 업무에서 한명의 개발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 사교성과 소통으로 동료 개발자와 기획자, 클라이언트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일하겠습니다.

## [COSVIEW프로젝트]

일반인을 위한 화장품 정보 사이트인 COSVIEW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Spring, JPA, Front End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팀원들과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COSVIEW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회원가입 로직을 짤 때 DAO를 이용해 회원가입 로직을 구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진행한다면 필요한 코드의 수가 너무 많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고민했습니다. 때문에, Mybatis와 Security를 공부하여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하였습니다. Security로 세션을 유지하거나 페이지마다 권한을 따로 설정하여 회원과 어드민의 기능을 따로 추가하였고 진행함에 있어 Thymeleaf도 공부하여 레이아웃을 나누고 회원과 Admin의 기능을 구별하였습니다. 동시에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부분은 Mybatis를 사용하여 SQL문을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유용하게 쓰였나요?그리고 Spring boot를 접하면서 JPA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Mybatis와는 달리 JPA를 이용하게 된다면 코드가 엄청 간결해지고 가독성과 구동에서 이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JPA를 사용하면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세세한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느꼈고, Mybatis를 더 공부하여 프로젝트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술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팀원들과 서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알려주게 되었고 무엇보다 서로 역할들을 나누어서 실무와 마찬가지로 협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직 설계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였지만 프로젝트를 통해 더 생산성이 좋은 코드에 대하여 탐구하게 되었고, 혼자 하는 개발이 아닌 팀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